




으 림



최 명 섭
임업연구원

과명 : 으름덩굴과
 학명 : *Akebia quinata* Decne.
 영명 : Five Leaf Akebia
 한명 : 木通
 일명 : あけび

 으름이 한국의 바나나 라는 말을 듣고 수년동안 집에서 키워보지만 아직 열매 맺힌 것을 본적이 없으니 무슨 이유일까. 문헌을 찾아보았지만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 이의 개화된 모습을 관찰하니 수꽃과 암꽃이 한나무에서 따로 봄에 피는데 수꽃은 크기가 작 으면서도 수는 많고 여섯 개의 수술은 보이지만 암술은 흔적 만 있으니 한꽃에서 스스로 수 분이 되기는 어렵고 암꽃은 수는 적지만 크기가 아주 커서 직경이 3cm정도 되지만 꽃잎 이 없는대신 자갈색의 꽃받침 잎이 마치 꽃잎처럼 달려있다. 순적으로 많이 피는 수꽃이야 피었다가 진들 별무소용이고 암꽃이 수꽃의 꽃가루를 만나 야 하는데 이 또한 어려운 일 이다. 열매의 흰과육은 단맛이 있어 바나나와 같다고 하지만

과육속에 검은 종자가 많아 그 냥 먹기에는 매우 거슬려 개량 에 나서 보지만 아직은 별무소 식이고, 겨울에도 진한녹색의 잎을 달고 있는 으름은 그냥 5 개의 소엽으로 된 잎만 바라보 아도 마냥 즐겁기만 하다. 깊은 계곡 양지바른곳에 올라갈 나 무 줄기만 있으면 어김없이 줄 기가 감고 올라가 있는 으름은 수분과 햇빛을 매우 좋아하는 모양이다. 덩굴식물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 덩굴식물 의 잎은 여러개로 갈라지고 나 무줄기나 그외 버팀목이 있으 면 그냥 타고 올라가 줄기의 끝부분에서 마냥 햇빛을 즐기 면서 생활한다.

1 생태적 특성

황해도 이남의 산야에 자 생하는 상록활엽의 덩굴식물로 높이가 5m까지 다른나무에 기어

올라가 자라고 수직적으로는 표고 50~1,300m에 분포한다. 지리적으로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중국에 분포한다. 내한성, 내음성이 강하며 토심이 깊고 비옥적운한 토양에서 잘 생육한다.

2 형태적 특성

잎은 새로나온 가지에서 어긋나고 오래된 줄기에서는 장상복엽으로 모여나며 소엽은 장타원형이고 5개로서 길이 3~6cm이며 양면에 털이 없고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꽃은 자웅1가화로 4~5월에 피고 잎과 더불어 짧은 가지의 잎 사이에서 나오는 짧은 총상화서에 달린다. 수꽃은 많이 달리며 암꽃은 크가 적게 달리고 지름 약 3cm로서 엷은 자홍색이며 꽃잎은 퇴화되어 3개의 꽃받침 잎이 대신한다. 열매는 장타원



형이며 길이 6~10cm, 직경 3~4cm로서 10월에 자갈색으로 익고 봉선이 터져서 종자가 분산되며 과피가 두껍다. 잎은 보통 5개씩이나 6개, 아주 드물게는 여덟잎 혹은 아홉장까지도 있는데 이를 특별히 여덟잎으뜸(var. polyphylla Nakai)이라고 하는데 속리산이나 안면도에서 발견되었다.

3 조경수로서의 활용

대부분의 식물은 꽃이나 열매가 아름다워 관상수로 식재하거나 화분에 심어 가꾸는데 으름은 늘어지는 줄기가 야성적이고, 잎새는 손바닥처럼 생겨서 특이하고 다른 물체를 감고 올라가 늘어지면서 불거리를 제공해 준다. 게다가 보라색꽃이 신비로우리 만치 아름다우며 먹음직스러운 열매까지 주렁주렁 달리니 이보다 더 좋은 덩굴식물이 어디 흔할까. 깊은 산속의 계곡 주변 아무도 봐주는 이 없건만 잎은 겨울에

도 푸르기는 왜 그리도 푸른지, 화분에 심어서 덩굴을 늘어뜨려서 키워 볼만도 하고 담장에 심어 덕을 맨다면 보기싫은 콘크리트 담장도 가리고 먹음직스런 열매까지 맺힌다면 이 아름다움이 어디 있겠는가.

4 번식법

-종자번식:가을에 종자를 채취하여 노천매장하였다가 파종하면 발아가 되고 수분을 좋아 하기 때문에 적습한 곳에 양묘하여야 한다.

-삼목:7월쯤 그해에 자란 가지를 잘라 삼목한다.

-근주이식:산지에 자란 야생묘를 굴취하여 이식하면 되는데 이식후 수분관리에 신경을 써야한다.

5 그밖의 용도

한방에서는 열매를 팔월찰(八月札)이라 하는데 9~10월 과실이 성숙할때 따서 햇빛에 말리거나 끓는 물에 담갔다

가 햇볕에 말려 사용하는데 이기(理氣), 활혈, 지통, 이뇨, 월경통, 요통 등에 쓰며 줄기를 목통(木通)이라 하는데 9월에 줄기를 채취하여 껍질을 벗겨 그늘에서 말려 소변혼탁, 수종, 부종, 빈뇨, 배뇨곤란, 유즙불통 등에 사용하며 목통근(木通根)은 뿌리 껍질을 벗겨 말려 쓰는데 거풍, 이뇨, 행기, 활혈, 보신보정(補腎補精)에 효능이 있다.

민간에서는 뿌리와 줄기를 말렸다가 수종(水腫)에 달여 마시거나 임질도 고치고 감기나 갈증이 심할 때도 이용한다. 또 봄에 물이 오를 때 나무 껍질을 벗겨다 삶아서 눈을 씻으면 눈병이 나았고 산모의 젖이 부족할 때는 잎을 달여 마셨다. 또한 으름은 새로나는 잎을 나물로, 어린잎은 찌거나 튀어 말려서 보관했다가 차로 마시기도 하며 종자에서 나오는 기름은 등유나 식용을 한다. **조경수**